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 382장/통 432장)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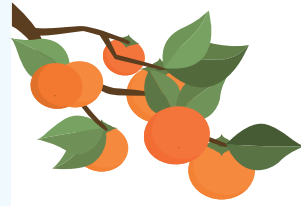
베드로전서 5:6-7

- ⁶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⁷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찬양

좋은신 하나님

1.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2.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3.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후렴)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추석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가족 중에 예배 순서 담당자를 의논합니다.
2. 예배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3. 성경책과 가정예배서를 탁자에 놓습니다.
4. 집에 있는 십자가를 탁자 위에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5.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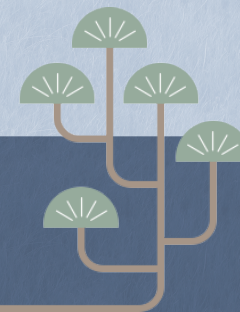
“가정예배 인도자는”

1.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2.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화목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도록 이끕니다.
4. 가족들에게 가정예배의 목적을 안내합니다.
-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추석 가정예배서





2021 추석 가정예배

예배의 부름 | 인도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기 도 | 담당자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5:6-7 | 담당자

말 씀 |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 인도자

온가족기도 | 모든 가족

우리 가정의 주인되신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증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좋으신 하나님 | 모든 가족

주기도문 | 다같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 베드로전서 5:6-7 •

지난 7월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21년 2분기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우울 위험군이 2019년 3%에서 2021년 6월 18%로 6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약 소비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는 이유는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어원적 의미는 ‘마음이 나뉘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상태가 염려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염려증에 시달립니다. 염려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매우 큰 병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염려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위에 던져두다’입니다.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두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둘째, 생사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이 염려가 많아지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한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천주교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깨달았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나까지 깨어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때부터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사를 주께 맡길 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디 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은 아기입니다. 아기는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잡니다. 아기가 잠잘 수 있는 이유는 엄마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은 완벽한 맡김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맡김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생사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 염려는 이제 주님 차지가 됩니다.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셋째, 염려를 모두 맡겨야 합니다.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모두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 내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 이전에 6절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염려와 겸손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교만에서 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며 불신앙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걱정 대신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염려로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가운데,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